

## “ 한국 교회 안에 매관매직이 있다니? ”

### ■ 이종윤 원로목사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키거나 특정한 직책을 맡기는 것을 매관매직이라 한다.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한 이 같은 악한 습성이 거룩한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전직이 마술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공허한 피상적 신앙을 가진 자였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흥미로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신자들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한낱 미아로 끝나고 말 우려가 없지 않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의 예수를 전하는 신앙보다 평 잡는 놀이 매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목회의 성공이요 교인 수가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로 제도를 갖지 않은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에 당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장로를 명예직으로 백여 명이 넘게 세우고 있는가 하면,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도 받지 않은 전직 장관과 대기업 회장을 교회 출석을 한 첫 주에 장로로 추대한다고 선포를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교회에서 연출되었다. 장로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중요한 직분이므로 상당한 신앙 경력과 식견을 가진 자를 교인들의 투표와 훈련을 거쳐 노회 고시 후 안수 받아야 함에도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여 매관매직한다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런 것만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도 사서 권능을 행하겠다는 배금주의 사상에 젖은 이들이 남보다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진 이들에게 명예라는 이름으로 성직을 남발한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베드로성당 건축을 위해 성직 매매를 하였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명예집사, 명예권사 심지어 명예장로 또는 호칭 장로까지 세우고 있으니 이는 종교개혁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은과 함께 망하리라는 책망을 받았다. 지당한 책망이다. 그러나 무서운 책망이다. 그렇다면 시몬은 마땅히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만 했다. 그것은 남의 기도를 빌어서 재앙만 모면하려는 무속신앙의 단면을 노출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 재앙이나 심판, 지옥이나 저주를 무서워하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다. 심판이나 지옥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직분을 인간을 위한 직분으로 둔갑시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재앙과 심판만 피하려는 것은 무속신앙에 젖어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개종은 했다지만 무속신앙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선악개오사(善惡皆吾師)라는 말이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있다. 선과 악이 모두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엔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도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본받고 따를 만한 빌립의 후예도 많지만 절대로 본받아서는 아니 될 시몬의 후예도 적지 않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가운데 ‘교회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다’ 는 구절은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듣고 개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거짓의 영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바로 모르는 이가 바른 신앙이 생길 수 없다.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해서 안 될 짓이나 하다가 남겨서는 안 될 것을 남겨놓은 시몬의 후예가 되지 말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바른 신앙 안에 살다가 주님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바른 교회를 후인에게 남기도록 하자.

-한국장로신문 [제1346호] 2012년 12월 8일 발췌-

<b>English Worship Service</b>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is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k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15:20-22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	"In Adam, In Christ" ..... Rev. Euichang Kim
* Hymn .....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b>서울교회 QR코드</b> 
------------------------	---	----------------------

<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역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선교사</b>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해정, 양해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화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라이, 필리몬, 프란스또, 수레시, 수비쓰, 일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록, 수련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일(말리우), 이재물(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가(스카리)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 무릎을 꿇는 자의 기쁨 ”

### ■ 시 95:1-8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신, 구약 시대에도,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 이후로는 헌신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었습니다. 교회는 방앗간과 같습니다. 방앗간은 떡을 하기 위해서 쌀을 가루로 만들고 가루를 시루에 올려 쪄서 떡을 만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가루가 되기 위한 곳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은 자신이 성령으로 가루가 되고 떡이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영광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루가 되고 성령의 영광 속에서 녹아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 1.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괴로움과 걱정이요 분노와 눈물뿐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겠다” 고 하십니다.(렘 29:11-13) 슬프고 괴롭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 생명까지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고후 5:17)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느 8:10)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려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왕상 8:54-56)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단 6:10)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권면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라, 의지를 강하게 갖기 위한 기도를 하라,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엡 3:14-19)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한량없이 큰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 2.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간절히 기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 95:8). 맛사는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자장과 멀어지면 안됩니다. 존경과 신앙이 두터운 연로한 목자장은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음으로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뜻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깨배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 마음에는 평화와 평안이 안주하며, 교회의 모임은 초대교회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유무상 통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어떤 사탄의 꾀계 가운데서도 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울교회의 전 교인이 합심한다면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주 안영로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	마 1: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3(2)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16(구주강림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105(10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사 43:18-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2020년 섬김위원 임명식 .....	말 은 이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희망”...	정영호 목사
* 찬 송 Hymn .....	249(249)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사 62:4 인 도 자
찬 송 .....	96(94) 다 합 께
기 도 .....	지성철 집사
성 경 .....	막 7:24-37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에바다” 설 교 자
찬 송 .....	286(218)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임송자 권사
성 경 .....	갈 4:1-11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상속자”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임

1. 교구위원회 총회 / 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한나 전도회 월례회 / 8일(주) 교구총회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3. 리브가 전도회 총회 / 8일(주) 교구총회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4. 권사회 총회 / 11일(수) 오후 2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5. 스테반회 총회 / 14일(토) 오후 5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12월 세례식이 12월 15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12월 8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시30분부터 문답 총 정리가 있으며 바로 리허설 후에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실종교인처분 선포 행정행위 공시】

지난 12월 4일 개최된 정기당회 결의에 따라, 후보 삼지로 놓어진 강서분 등 70명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종교인처분을 선포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노재현(안과), 김동준(내과)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5.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해 주신 정영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 정영호 목사 소개

연세대 신학과(B.Th.), 동대학원 정치학과(M.P.sui, 박사과정 수료)

미국 뉴브런스윅 신대원(M.Div.), 미국 PCUSA목사 안수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STEM리더십연구소 대표

### ☑ 장 례

1. 故 박영덕 장로(4교구 박미혜 권사의 부친, 김규태 집사의 장인) / 6일(금) 별세, 9일(월)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43명	216명	192명	1,251명	126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2/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1일	헌 금	48,428,430	
	특별예배비		1,443,500
	찬양운영비		6,980,000
	교회학교운영비		341,60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244,960
	경 조 비		460,000
	출 판 비		390,000
	복리후생비		210,490
	통 신 비		55,660
	수도광열비		915,900
	차량유지비		1,796,700
	소모품비		332,100
	환경유지비		346,000
	식당운영비		2,249,820
	합 계	48,428,430	16,066,730